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2차 회의 9월 27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12차 회의가 2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윤하 위원장을 비롯한 조미옥·이철갑·강대석·김남기·이묘숙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했다.

“지역현안 보도·대안제시 돋보여…재난안전 정보 더 많았으면”

▲강대석

지역 현안을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추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9월 8일 1면 ‘광주의 민낯…아수라장 된 문화전당’과 9월 12일 1면 ‘민평 갈등 시민 원탁회의로 풀자’, 9월 20일 1면 ‘민평과 문화전당 분리 안 돼 농성 아닌 광주의 견 모아야’, 9월 21일 ‘옛 도청건물 해법 모색 광주대책위 27일 출범’까지 연속 보도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기여한 보도였다고 평가한다.

또 비엔날레 기간을 맞아 전시프로그램을 소개해 많은 도움이 됐다. 특히, 8월 30일 1면 ‘녹두서점 5·18기억의 책장을 펼치다’와 18면 ‘광주, 시간속을 걷다’ 시리즈 ‘녹두서점’은 그 시절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볼 수 있어 좋았다.

기획시리즈 ‘시대를 밝힌 노래’ 중 ‘8·15와 우리의 소원’, ‘부용산과 빨치산’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재조명한 기사로 깊은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9월 12일 경주 지진이 발생한 것에 따른 ‘지진대피요령’이나 ‘대피시 필수품’ 등 피해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충실한 보도가 필요했다는 생각이다.

▲김남기

9월 13일 추석특집 중 ‘한가위 우리 동네 달인을 소개합니다’는 정말 좋았다. 이같이 밝은 기사는 읽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 답답한 정치 기사의 홍수 속에서도 밝은 기사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면에 반영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희망찬 기운을 전달해주길 기대한다.

광주일보가 영·호남 교류·상생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광주일보의 노력이 영·호남 가교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9월 27일 1면에서는 ‘취업박람회장의 구직자들’이라는 사진기사와 ‘녹차산업의 메카 전남 1위 자리 경남에 내줬다’라는 기사를 다뤘다. 지면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움을 수 없는 게 ‘의·식·주’다. 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난제이기도 하다. 광주·전남지역 미래 먹거리,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안 해결을 위해 기사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제시에도 힘써 달라.

1면 머릿기사를 정치성 기사로 채우기 보다 문화·스포츠 등 밝은 내용의 기사를 배치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광주일보와 우리 독자위원회가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으면 한다.

▲조미옥

NIE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뉴스’와 ‘나쁜 뉴스’를 골라보라고 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단순히 미담기사와 범죄 관련 뉴스 등 사건의 내용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하지만, 합리적 비판과 그 시각에 대해 가르친 뒤에는 아이들의 관점이 확실히 바뀌었다. ‘보협시기’ 기사는 범죄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해 좋은 뉴스로 분류한 반면, 광주일보의 보이 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사는 “범죄수법을 과도하게 자세히 알려줘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나쁜 뉴스로 꼽았다. 학생들은 잠재적 독자다. 이들을 위해 발로 뛰는 기사, 눈높이 기사 발굴에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최근 지진 관련 기사가 많았다. 특히, 9월 19일자 6면 ‘5.8도 최강 지진 한반도 뒤흔든 날…무책임한 선생님을’ 기사는 경각심을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옛 도청 갈등 연속 보도로 해결 노력
지진 피해예방·안전 관련 기사 부족



김남기
광주도시공사 전문위원·사회가

추석특집 ‘동네 달인’으로 희망 전달
밝고 훈훈한 기사 꾸준히 발굴해주길



조미옥
영암신북중학교 수석교사

범죄수법 지나친 설명 악용 우려돼
김영란법 상세 보도로 혼선 막아야

일깨웠다. 실제 학교에서는 지진 매뉴얼이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는 곳이 없을 뿐더러, 매뉴얼이 현실에 맞지않는 경우도 있다. 지진에 대한 심층보도 외에도 안전불감에 대한 기사들을 다뤘으면 한다.

광주일보가 자체적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개최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강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소개가 없어 아쉬웠다. 김영란법은 최근 핫이슈다. 평강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독자들도 깊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도가 뒤따랐으면 한다.

9월 19일 22면 ‘유라시아 역사·문화 통해 우리 삶 돌아보는 계기됐으면’ 기사는 독자들의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좋은 기사였다. 언론은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한다. 앞으로 도 이처럼 미래지향적인 기사를 많이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윤하

전남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주임교수



리우 선수들 뒷이야기 생생 전달
최근 멋진 편집들 계속 이어지길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자동차산업벨리 비전 제시 역할 기대
광주 온 유커 지갑 열 해법 모색해야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이례적 폭염, 난개발에서 원인 찾아야
자치구 경계 조정 독자 궁금증 해소

▲김윤하

8월은 올림픽의 계절이었다. 지역 출신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을 신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지면에서 느껴진다. 단순히 경기결과 보도하는 것에서 벗어나 선수들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짜릿한 순간을 전하는 생생한 편집이 돋보였다.

8월5일 18면 ‘우리 아들·딸 히트다 히트’는 개막 전 전국 경기 일정과 지역출신 선수들의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편집이었다. 8월11일 18면 ‘소름겨객’은 박상영 펜싱선수의 금메달 획득 순간을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이 조명한 편집이었다. 다만, 편집과정 중 기존 기사의 뒷부분이 잘려나간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소 제목을 뽑아 자칫 독자들의 이해도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다.

8월 2일자 1면 ‘밥줄 끊는 밤이 어디있소?’와 6월28일 ‘메시트

(Messi+Exit)’는 멋진 편집이었다. 신문편집은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어내면서도 많은 기사 중 독자의 기사선택을 안내하는 길잡이다. 편집은 신문제작의 핵심이자 타 신문과 차별화하는 또 하나의 기사라고 할 수 있다. 신문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편집부에서 앞으로도 광주일보가 승승장구하길 바란다.

▲이묘숙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많은 시민들이 폭염으로 고생했다. 에어컨을 가동함에 따라 가정용 전기 누진세 문제도 겹쳤다. 하지만, 폭염 피해 보도에 치중하기 보다 지혜롭게 전기를 줄이는 방법이나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 등 유용한 정보를 다뤘으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지진 보도도 마찬가지다. 광주에서도 지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내진설계의 야간자를 학습 강요 등 문제에 대한 보도 외에도 대피요령, 생존법 등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다. 경주지진의 진앙지인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지진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언론이 광주·전남지역의 단층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진 관련 발빠른 취재와 후속보도가 나올 경우 지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유언비어 확산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광주일보가 좋은 편집으로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벨리 기획시리즈는 그 구성과 내용이 좋다. 왜 자동차산업벨리가 필요한지,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하고 있다. 지역 미래를 내다보고 비전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

8월 9일 14면 ‘유커, 광주서는 쏠쏠이’라는 기사를 봤다. 하지만, 광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에서 체류할 인프라가 적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숙박 자체가 어렵는데다, 광주만의 음식문화를 찾는 것도 어렵다.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철갑

9월 들어 광주일보 지면을 보면서 1면 사진기사를 어떤 크기로, 어떤 위치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신문이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편집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에 어울리는 적절한 사진을 시원하게 배치한 편집이 눈에 들어왔다.

9월 9일 1면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 조정, 총선 땀 빨리 끝내니 잠잠’과 같은 날 3면 ‘10만 명 붐고 1년만에 2700명 줄어…북·남구 편입 3개안 마련’ 등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독자와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조명해야 그 정보를 토대로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 정보제공과 심층적인 보도에 앞장서달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반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광주의 경우 고층아파트 난립과 녹지부족 등이 폭염을 증폭했다고 본다. 여름철 도심 폭염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감시가 필요하다.

정치 현안도 빼놓을 수 없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의 민심이 큰 작용을 할 것이라고도 한다. 정치관련 뉴스를 다루는 것도 게을리할 수 없는 일이다. 광주일보가 호남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의 여론을 주도해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왔다.

/정리=박기용기자 pboxer@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대표 1522·3396

<p>숙박시설</p> <p>감정가 38억7천만, 최저가 27억1천만 오룡동 3동 7층 / 대지 363평 건물 1200평</p>	<p>전원주택</p> <p>감정가 5억 4천만, 최저가 3억 7천만 진도 / 대지 347평 건물 60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소, 자동차전시장 감정가 28억 2천만, 최저가 19억 7천만 남구 월산동 / 건물 387평 / 대남대로변 / 1,2,3층(층별 입찰가) ◆ 수익형 상가 빌딩 감정가 21억 3천만, 최저가 9억 6천만 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 ◆ 가스 충전소 감정가 12억 7천만, 최저가 12억 7천만 화순 화순읍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3기 6구 / 자동 세차기 / 화순 유일대로변 ◆ 고급펜션 및 주택 감정가 6억 8천만, 최저가 4억 8천만 여수 / 대지 524평 건물 106평 / 해변 전망 ◆ 전통한옥식 전원주택 감정가 3억 6천만, 최저가 2억 5천만 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 ◆ 상가 매매가 17억 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 ◆ 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 매매가 16억 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전원주택 매매가 13억 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 ◆ 숙박시설 부지 매매가 8억 5천만 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 ◆ 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 매매가 5억 5천만 북구 운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
---	--	---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 - 6772-1114 김 주 성